

## 【서평】

### 요한 갈통의 평화·인권론

- 요한 갈통 지음, 강종일·정대화·임성호·김승채·이재봉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2000);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 (London: Sage, 1996).
- Johan Galtung, *Human Rights in Another Key* (Cambridge, MA: Polity Press, 1994).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갈통은 어떤 사람인가

대표적인 평화학자인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1930년 10월 24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와 친할아버지는 모두 의사였다. 갈통은 오슬로대학에서 1956년 수학 박사, 이듬해에는 사회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하였다. 그는 두 번 결혼해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두었다. 두 번째 부인인 후미코 니시무라와 함께 트랜센드 연구소(TRI: TRANSCEND Research Institute)를 설립하였다.

갈통은 1957년 이후 미 컬럼비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5학기 동안 가르쳤지만, 오슬로로 돌아와 1959년 오슬로 평화연구소(PRIO: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를 창립하여 1969년까지 소장으로 일했다. 그 사이 그는 1964년 세계 최초의 평화학 학술지 *Journal of Peace Research*를 창간했고, 같은 해 국제평화학회(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 창

립에도 관여하였다. 그는 오슬로대학교에 만들어진 평화·분쟁학과의 초대 학과장으로 임명되어 1977년까지 봉직했고, 그 이후 전 세계 여러 대학에서 평화·분쟁문제를 가르치고 관련 연구기관과 학과를 설치하는데 기여하였다. 1975년 당시까지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1987년에는-노벨평화상이 정치적 고려가 스며들어 오용된다는 문제의식 하에 그에 맞서-순수 평화연구와 분쟁해결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대안적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Right Livelihood Award을 수상했다. 그런 그를 평화학의 창시자의 한 사람, 평화학의 대부라고 부르는 것이 과찬만은 아닐 것이다. 저명한 국제안보학자인 케네스 볼딩(Kenneth Boulding)은 갈통을 일러 “그의 연구 성과가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해서 그것들이 인간에게서 나왔다고 믿기 힘들다”<sup>1)</sup>고 말한 적도 있다.

갈통은 1950년대에는 수학과 사회학 연구, 1960년대에는 정치학, 1970년대 경제학과 역사학, 1980년대 인류학, 신학 등을 주로 연구하고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내놓았다. 물론 그가 평화학을 개척하고 그것을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비단 그가 다양한 분과학문을 섭렵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나치 독일이 노르웨이를 점령했을 때 어린 갈통이 보고 겪은 기억은 그가 일찍부터 비폭력과 평화에 눈뜨도록 만들었다. 12세이던 그는 아버지가 나치 군인에 의해 체포돼 가는 것을 보았다. 10대 소년 시절 그는 이미 평화 중재인이 되어 있었고, 1951년 병역의 의무(12개월)를 거부하고 대신 사회봉사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청년 갈통은 정부가 사회봉사를 병역 기간보다 6개월 더 요구하자 거부하고 감옥행을 택했다. 그가 소극적/적극적 평화, 구조적 폭력과

1) Kenneth E. Boulding, “Twelve Friendly Quarrels with Johan Galtung,”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14, no. 1 (1977), p. 75.

같은 용어를 개발해낸 것은 고요한 캠퍼스를 거닐다가 생겨난 지적 호기심의 발로가 결코 아니었다. 갈통은 팔순이 넘은 지금까지 전 세계 분쟁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분쟁 해결의 중재 역할을 하고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평화학의 체계와 내용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오고 있다.

그는 지금, 오랜 기간 다양한 현장에서의 경험 및 관찰, 심화와 확장을 거듭해온 평화연구를 종합해 생의 마지막 불꽃을 불사르고 있다. 1993년 그는 동료들과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트랜센드: 평화·개발·환경 네트워크(TRANSCEND: A Peace Development Environment Network)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트랜센드는 주로 온라인을 활용하여 평화 연구, 교육, 홍보, 자문을 해오고 있다. 갈통은 또 학자의 양심으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식민주의, 제국주의 통치를 비판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는 한반도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학자, 운동가들과 교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관한 글도 오랫동안 발표해왔다.<sup>2)</sup> 60여 년에 걸쳐 그는 평화학을 개척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꾸준히 연구 결과를 내놓아 도합 1백여 권의 책과 1천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갈통이 전개한 평화학은 오늘날 국제관계학, 그 중에서도 분쟁연구, 전략연구, 그리고 평화문화, 평화교육, 실증주의적 사례연구, 나아가 역사 및 종교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그가 1996년 평화학 연구의 기념비작으로 평가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2) 갈통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첫 논문을 발표한 때가 1972년이다. Johan Galtung, "Divided Nations as a Process: One State, Two States, and In-between. The Case of Korea,"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9, no. 4 (1972), pp. 345~360.

(*Peace by Peaceful Means*)』(이하 ‘평평’이라 줄임)를 내놓기까지 그는 평화학의 물줄기들을 찾아 현장을 체험하고 사유하고 기록해왔다. ‘평평’은 평화학의 각 줄기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서로를 엮고 주고 있다. 그래서 복잡하고 난해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만큼 평화학이 연구 범위와 방법이 복잡한 융합 학문임을 말해주고 있다. 갈통은 ‘평평’에서 평화학이 크게 평화이론, 갈등이론, 개발이론, 문명이론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갈통의 이 저작이 평화학에서 독보적인 연구로 평가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평화연구를 하나의 학문체계로 확립하는데 필요한 철학, 이론, 가치정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전통 안보연구가 고집해온 평화=전쟁 부재라는 고정관념을 적극적 평화론으로 극복하였다는 점은 그 일부에 불과하다. 그는 ‘평평’ 서문에서 “우리가 평화연구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 학문세계에서의 문화적 폭력의 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6~7쪽)고 말한 것은, 평화학이 기성 학문체계를 종합하거나 그 틀에서 확립 가능한 학문체계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그의 평화이론(제1부)은 데이터-이론-가치의 삼각관계를 바탕으로 단지 경험연구만이 아니라 비판연구, 구조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갈통의 평화학이 기성 실증적 행태연구의 비좁은 방에서 나와 평화연구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평화연구의 범위를 자연, 사람, 사회, 세계, 문화, 시간 등 6개 공간으로 확대하여, 둘째, 거기에 내적 논리와 외부와의 관계, 폭력 및 평화 유발요인을 교직시켜 연구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통은 폭력을 감소, 예방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차원에서 존재하는 요소들, 가령 정치체제, 성(姓), 생활양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갈통은 ‘평평’의 제2부에서 갈등이 창조자 혹은 파괴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보고, 갈등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어떻게 건설적으로 유도하는

냐에 주목한다. 이름하여 ‘갈통의 창조적 전환’이다. 그는 태도, 행동, 모순을 세 꼭지점으로 하는 갈통의 삼각형에 명시적, 잠재적 수준을 대입하여 갈통의 6개 방향과 9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갈통 유형에 따라 갈통 전환법도 다르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 그가 가장 주목한 방법은 비폭력적 갈통전환법이다. 갈통은 말한다. “비폭력의 역사를 살펴보지 않고 금세기 난폭한 역사를 기록하고 정치를 연구한다는 것은 금세기를 더욱 비방하는 일이 된다”(260쪽).

갈통이 구조적, 문화적 폭력/평화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개발과 문명에 관한 이론은 필수적인 요소인지도 모른다. 그는 ‘평평’ 제3부에서 넓은 의미의 평화학이 개발학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는다고 보고 15가지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거기에는 분화와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서구문명이 보편적이라는 고정관념과 개발원조에 대한 비판적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그 뒤에 제국주의, 식민주의, 성장지상주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지배 담론이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을 만들어 평화를 교란시킨다는 것이다. 그가 구조적, 문화적 평화에 부합하는 개발이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중 경제체제가 공존하며 성장, 분배, 생태, 평안을 가져다 줄 절충적 개발이론이다. 가능할까!

갈통은 자신의 평화론을 확립하기 위해 개발이론과 함께 문명이론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인류 문명을 우주론에 바탕을 두고 6가지로 분류하여 그것이 각각 자연, 자아, 사회, 세계, 시간, 개인 간 관계, 인식의 7개 공간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밝히고 있다. 그의 개발이론이 구조적 폭력, 즉 착취와 억압 구조를 극복하고 적극적 평화를 가져올 논리적 기초라고 한다면, 문명이론은 평화가 여러 문화권에서 다양한 맥락과 방식으로 추구하는 이형동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장치로 보인다. 그가 “심층 문화에 대한 연구가 평화연구의 가장 중요한 경계영역이다”라고 말하며 주요 문화권에서 나타난 구조적/문화적 폭력의 전형으로 히틀러주의, 스

탈린주의, 레이건주의를 다루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갈통은 형태를 달리하는 국가체제가 공통적으로 가부장적 정치제도, 오만과 비밀주의, 국가이익을 명분으로 한 폭력 사용으로 평화에 위협을 준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그의 평화운동론이 비폭력 행동, 가역성의 원칙, 희생자들에 대한 동정심과 함께 국가체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포함하는 이유이다. 그가 이 책을 “평화는 인내의 훈련”이고 그 “목표는 평화이지 널리 알려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맺는 까닭은 무엇일까?

### 다른 눈으로 보는 인권

갈통은 ‘평평’을 출간하기 2년 앞서 『다른 눈으로 보는 인권(*Human Rights in Another Key*)』을 출간하였다. 국내에서는 평평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의 평화론의 진전을 이해하는데 필독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권을 평화와 견주어 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평에서 전개하는 전체론적 인식과 포괄적 접근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다. 수학, 변증법, 분석과 종합을 활용한 논법은 이미 여기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이 책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갈통은 서양 중심, 법적 전통 위주의 기존 인권론과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갈통은 ‘필요’(needs) 개념을 개입시켜 자신의 인권론을 전개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 권리는 수단이고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이다(70쪽), 2) 인간의 필요는 각 개인 내부에 위치한 것인 반면, 인권은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56쪽). 그의 인권론에서 인간의 필요는 누가 희생자이고 누가 위반자인지를 가려내는 지침 역할을 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도록 인도해준다(55쪽).

갈통은 서양 인권을 보편적 인권으로 파악하는 것은 서양 아닌 곳의 인권 담론을 그 문화권 자체에서의 인권 전통에서 찾지 않는 태도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인권은 개인, 국가, 국제사회 등 3차원의 맥락을 띤 사회적 구성이라고 파악한다. 서양이 만들어낸 인권 규범도 서양적인 구성이라는 것이다.

갈통은 또 인권에 대한 법적 전통은 구조를 무시하는지를 묻고, 사회과학에서 보편적 법칙이 없듯이 법적 의미에서도 보편적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법적 전통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필요, 구조, 과정을 인권 논의에 가져온다. 특히 원자론적 인간관에 기초한 법적 전통은 인권을 개인으로 치환시켜버린다. 갈통은 원자론적, 법적 전통에 기반한 인권론의 함정을 “피상적인 인권(shallow rights)”으로 부르며 경계한다. 개별 인권들이 감옥같이 조직된 사회에 맞서 하나의 약속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더 깊은 발전을 보장하는 인권은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의식이다. 그의 “더욱 심도 깊은 권리(deeper rights)”가 출발하는 지점이다. 이런 종류의 인권은 인간의 필요와 깊이 연계되어 있고, 해당 공동체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천착 없이는 파악할 수도 없고 증진할 수도 없다. 갈통의 인권론에서 인간의 필요는 인권을 더 폭넓은 가치 위에 올려놓는 토대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필요를 판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당신이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어보시라.

갈통은 인간의 필요를 크게 생존, 안녕, 정체성, 자유로 묶고 거기에 세계인권선언, 국제자유권규약, 국제사회권규약에 명시된 인권 목록을 재배치하는 식으로 필요와 인권을 결합시킨다(72쪽, 105쪽). 물론 그는 권리와 필요가 만나는 방식과, 권리가 필요(혹은 필요가 권리)를 왜곡시키는 경우까지 검토한 후 필요와 권리의 변증법을 제시한다. 여기서 그가 중시하는 것은 필요가 권리로 전환되는 환경이다. 보편적 인권을 보편화시키는데 구조와 문화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이다. 구조와 문화에

주목해 인권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그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그가 제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세계인권선언에 나오는 보편성보다는 기본적인 필요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문화와 역사적 맥락에 부합하는 특수한 인권을 보편적 인권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인권과 발전, 평화를 연관지으면서 구조적 접근을 강조한다. 발전과 관련한 구조적 접근은 공동체의 자립과 생태를 의식한다. 평화와 관련해서는 한 행위자를 침략자로 낙인찍는 걸 경계하는 대신 폭력이 전개되는 ‘과정’에 주목하자고 말한다. 물론 그는 이 책 4장 말미에서 제도와 구조의 변증법을 제안하며 행위자 중심의 접근과 구조/문화 중심의 접근법의 유용성을 각각 인정하고 이를 잘 결합시킬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역사를 인간의 진보 과정이라 말한다면 그 진보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권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갈통은 인권의 발달을 청색, 적색, 녹색으로 재미있게 평가한 뒤 추가적인 발전을 열어놓으면서도 그것들을 융합한 무지개색 인권을 사회 진보를 이끌어갈 대안적 인권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무지개 인권의 상(像)을 그리면서도 그것이 이상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국가, 자본, 시민사회를 조합하여 그 유형이 인권에 얼마나 친화적인지 검토하는 걸 잊지 않고 있다. 갈통은 지금까지 인권 담론을 서양이 주도해왔지만 이제는 아이디어가 고갈되었다고 진단하고 서양이 아닌 곳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보편성을 발전시켜가는 긴 여정 중 하나의 정거장일 뿐이다. 보편성은 모든 문화가 관계하는 끝없는 과정이다”(154쪽).

### 갈통과 한반도발 평화학

갈통의 평화학 이론은 연구 범위의 광범위함, 연구 방법의 다차원성, 그리고 학문체계의 융합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런 특징은 그가 적



극적 평화론을 확립해 나가면서 수반된 필연적인 현상인지도 모른다. 그의 적극적 평화론은 평화학 이론의 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하였다. 전쟁을 비롯한 물리적 폭력이 없는데도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소위 비평화 구조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할 새로운—혹은 확장된—사유의 틀을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다. 서양 사회과학은 물론 일부 인문학에서도 맹위를 떨쳐온 실증주의 인식론에 기초한 연역적 논리로서는 구조적, 문화적 폭력을 파악할 수 없고 구조적, 문화적 평화를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의 교직으로서 살아있는 역사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그리고 우주와 내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비판적 사유가 동반되지 않은 현상적 차원의 논의는 소극적 평화를 가져오기에도 한계가 있다.

물론 그의 평화학 이론체계가 갖는 특징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갈통의 평화 논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연구의 초점이 불분명하다, 이상적이고 규범적이다, 반증(反證)이 불가능한 비과학적 주장이다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갈통의 학문적 편력, 특히 그가 주류 사회과학과 논리학에 정통하고 많은 분과학문에 정통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런 비판을 그가 십분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그런 비판은 대부분 정곡을 비껴간 것으로 보인다. 갈통의 평화학이 융합 학문인데 거기에 분과학문의 패러다임을 가져와 비판한다거나, 그의 공부가 서술, 분석을 넘어 처방을 포함하는데 실증주의의 틀에서 한정할 것을 요구한다거나…. 또 그의 적극적 평화론이 평화(이론)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전통적인 안보연구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반면에 그의 평화론은 안보연구를 확장시켜 대두한 인간안보론으로 충분히 답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런 지적은 역으로 평화학이 안보연구를 향해서도 할 수 있는 말이다.

물론 여기서 소개한 갈통의 두 저작이 그의 평화학 이론의 종착점은 아니다. ‘평평’에서 그는 개발, 문명 이론을 전개하여 그것을 그의 적극적

평화론을 전개하는 주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개발이론과 문명이론이 어떤 관계를 맺으며 적극적 평화에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갖는지, 나아가 그런 이론들이 소극적 평화와는 어떤 관계를 맺는지는 ‘평평’에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건설적 비판을 반영한듯 갈통은 그의 평화학을 지금도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 가령, 평화와 개발을 연관짓는데 있어 정치체제 유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2008년의 저작 『민주주의, 평화, 개발(Democracy, Peace, Development)』은 그런 비판에 대한 응답의 일부이다. 2000년대 그의 또다른 저작들, 대표적으로 『평화를 찾아서(Searching for Peace)』, 『초월과 전환(Transcend and Transform)』은 이론과 사례, 평화와 갈등 문제를 결합시켜 자신의 학문을 더욱 성숙시킨 저작들의 일부이다. 이는 그의 적극적 평화론의 진전일 뿐만 아니라 평화학 자체의 진보임에 틀림없다.

갈통의 평화론이 한반도발 평화학 이론 확립에 줄 수 있는 함의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 자체가 하나의 연구주제가 될 만한 가치가 있다. 우선, 연구시각을 꼽을 수 있다. 그는 평화연구를 진단, 예측, 처방이라는 삼각구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연구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평화연구는 평화운동과 결합하여 이 삼각구도를 확립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지적은 한국의 연구자들이 평화연구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할 때 곱씹어볼 만하다. 둘째, 평화학의 연구 범위와 관련하여 갈통은 폭력과 평화, 소극적 차원과 적극적 차원,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네 측면을 결합해 16개의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6개의 공간을 제시한다. 너무 방대하여 논리 체계와 연관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미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구도는 개별 분과학문 및 연구자의 연구 위치는 물론 일정 범위에서의 연구, 가령 한국 평화학의 현주소와 과제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갈통의 평화학 연구 범위를 갖다 놓고 한국 평화학의 오늘과 내일을 그려보는 일도 유용할 것이다. 셋째, 연구방법과

관련해 갈통은 자신의 빼어난 지식을 드러내듯이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을 도입해 그의 평화학을 정립해왔다. 문헌연구에서 비교분석, 통계분석, 인터뷰, 참여관찰까지. 그가 문화와 구조에 대해 천착한 자세도 놓칠 수 없다. 그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연구방법을 유연하게 선택하는 모습은 학제간 연구에서 한 연구자의 자격을 생각하게 한다. 적어도 학제간 연구란 하나의 관심사와 하나의 방법을 가진 연구자들의 만남이 아님을. 갈통은 연구 대상의 안과 밖, 그리고 사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 원인을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살펴볼 때 제도와 구조,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 환경과 행위자 등 이분법 구도를 벗어나 융합적 접근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갈통의 평화학이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함의는 적극적 평화론을 창조적으로 적용해 한반도발 평화학을 수립할 필요성과 자극을 불어넣어 준 것이다. 긴장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갈통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양측으로부터 그의 적극적 평화론이 소극적 평화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말이지 분단 한반도에서 평화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에 우열과 선후가 있을 수 없다. 결국 한반도발 평화학은 소극적 폭력과 적극적 폭력의 선순환 구조를 비폭력 전환법을 통해 악순환(!) 구조로 바꾸는 길을 찾아내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 전환의 방향은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그리고 양자 간의 선순환이다. ‘초월’은 그 과정에서 뚜렷한 상이 그려질 것이다. 이 3단계 논리를 북한 인권 논의에 적용하면 어떤 상상력이 가능할까? 이런 전환을 통해 한반도발 평화학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일차 관건은 분단을 통일만이 아니라 평화의 눈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일 것이다.

**서보혁**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근 저서로 『코리아 인권』, 『헬싱키 프로세스와 동북아 안보협력』(공편),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 이론』(공편) 등이 있다.